

# 일상서 문화예술 향유... ‘예향 도시’ 여수로 도약

여수시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향의 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예올마루 기획공연을 비롯해 시립예술단의 정기·기획 무대, 시민 참여형 축제, 120여개 문화예술(공연, 전시, 공예 등) 행사 등이 도심 곳곳에서 열려 시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여수문화재단 출범과 문화의 달 행사개최까지 앞두고 있어, 문화예술도시 ‘예향 여수’로의 도약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또 이순신광장과 해양공원, 장도 일원, 소호동동다리, 아파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개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힘썼다.

행사는 예올마루 기획공연 23회를 비롯해 시립합창단 55회 공연, 시립국악단 53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공연이 연중 마련됐다.

이 밖에도 버스킹과 여수마점페스티벌, 재즈페스티벌, 여수음악제, 여수예술제, 여수민족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재즈페스티벌·참여형 축제 등 시민에 호평

공연 접근성 기반 마련·문화 가치 다양화 등

행사가 시 전역에서 개최돼 문화향유 기회를 한층 넓혔다는 평가다.

특히 시카고와 명성왕후, 킹키부츠 등 대형 뮤지컬을 포함한 23회의 전문 공연을 예올마루에서 선보여 고품격 공연에 쓸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문화 환경을 구축했다.

시는 또 세계절 내내 이어지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도시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여수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에도 노력해 왔다.

여수 대표 3대 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동동북축제·여수불꽃축제’는 역사·전통을 결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여수의 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영취산 진달래축제’와 ‘여자인 갯별노을체험행사’,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 등 계절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들이 연중 이어졌으며, ‘항일암 일출제’는 연말·연시 여수만의 감성과 매

력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의 문화예술 주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 참여 기반이 한층 확대되고, 여수만의 문화 브랜드 가치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문화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가 중심이 돼 추진해 온 문화예술 지원 체계와 각종 기획 사업을 보다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구조로 재편,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되는 여수문화재단은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 문화생태계 형성을 위한 문화정책사업 추진, 지역 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문화 자원과의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기명 시장은 “문화재단 출범과 문화의 달 행사 개최를 통해 여수 문화예술의



1 여수 불꽃축제

2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10주년 기념페스티벌



전문성 등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진정한 예향의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곡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비전 선포

인구 감소·초고령화 농촌 대응...내년까지 매달 15만원 지급

곡성군은 주민 삶의 안전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 뫼쳤다.

군은 최근 레저문화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새로운 정책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2월부터 내년까지 군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지역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행사를 통해 기본소득 사업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소멸 대응!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과 ‘사람이 머물고, 지역이 살아나는 곡성’ 등 슬로건 2종을 선선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군민들과 함께 범군민 비전 퍼포먼스를 진행함으로써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곡성군이 선도적으로 길을 열어 군민 누구나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gwangnam.co.kr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인근 농경지 복원지에 흑두루미 2200마리가 들어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 순천만 갈대숲에 흑두루미 2200마리 활동

시, 서식환경 개선·복원...“철새 지속 관리”

최근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인근 농경지 복원지에 흑두루미 2200마리가 들어와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과거 관행농업이 이뤄지던 농경지로, 순천시는 2009년부터 순천만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 매입을 추진해 왔다. 장기간 매입이 지연됐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농경지를 지난해 매입하는데 성

공했다.

시는 토지 매입 이후 해당 부지를 신속히 복원했다. 그 결과 흑두루미가 대규모로 유입돼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히 많은 탐방객이 찾는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에서 흑두루미의 먹이활동을 관찰할 수 있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탐조대 인근 맨발걷기 코스인 람사르길 주변에서도 흑두루미가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탐방객들은 흑두루미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순천만의 서식 안정성과 복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어진 토지 매입과 복원 노력의 결실로 이제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에서도 흑두루미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시민과 탐방객이 갈대숲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순천만의 철새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 고흥 ‘365 군민소통폰’ 민원 해결 창구 자리매김

시간·장소 제약 없이 소통...97.7% 처리 ‘만족’

고흥군 ‘365 군민소통폰’이 군민의 민원 해결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365 군민소통폰’을 통해 4개월간 총 354건의 제안·건의 등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46건을 처리 완료했다.

365 군민소통폰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군민들이 제안, 건의, 고충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군수가 직접 확인한 뒤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지시하고, 2일 이내에 답변하는 고흥군의 대표적인 군민 소통 시스템이다.

군민소통폰을 통해 접수된 354건 중 346건(97.7%)이 처리 완료됐으며, 미처리 건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

로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건의가 24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고충 54건(15%), 제안 18건(5%), 기타 39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고흥읍 40건(11%), 도양읍 36건(10%), 금산면 31건(9%), 도화면 19건(5%), 포두면 17건(4%) 순이었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군정을 움직이는 큰 힘이다”며 “365 군민소통폰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군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군 ‘365 군민소통폰’이 군민의 민원 해결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공영민 군수가 365 군민소통폰을 확인하는 모습.

## “우리동네 예산 내가 직접 설계해요”

보성, 주민참여예산 상시 공모...온·오프라인 신청

보성군은 2027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연중 상시 접수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군은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공모 기간을 연중 상시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보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

능하며, 보성군에 본점,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와 임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의 대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제안 참여자에게 보성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사업에는 부서 검토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도 차등 제공할 예정이다.

제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군은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 사업,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담당 부서의 타당성 및 수혜도 검토를 거쳐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단,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된 제안은 2028년도 예산 반영 대상으로 검토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더 편리하고 활기차게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mh66@

## 광양, 결혼이민자 정착·인구 증가 도모

총 22명에 총 660만원 지원

광양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결

이반 사업은 전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결혼이민자의 국적 조기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이다. 신청은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초 1회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증명서류 확인 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시는 올해 총 22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660만원을 투입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적 취득 관련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광양=김귀진 기자